

지역 소식통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5일 '치매예방 관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부안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인지증진 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농촌형 인지재활 특화사업을 개발 보급하는 것에 높게 평가 받았다. 더불어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7월 정식 개소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어르신 쉼터 운영,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하게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와 함께, 2020년 전국 치매극복 회망수기 공모전에서도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쉼터 지은희 담당자가 '특별한 친구'로 우수작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려상을 수상, 펜과 글씨로 치매극복을 실현.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 2개의 보건복지부 상을 흐려하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다음달 12일까지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정읍시가 어르신들의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읍·면·동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비대면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은 남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 납세 정보 제공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김영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상담신청서를 접수받아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납세자 권리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회망자는 10월 12일까지 정읍시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서부복지센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시동

고창군, 민·관 추진위 발족…전문가·주민 힘모아
염전 활용, 내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용역 찬결음

고창군과 군의회, 도시 생태전문가, 지역주민이 손을 맞잡고 염전 보존과 명품 생태체험장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4일) 오후 행정·의회·전문가와 주민 등 30명으로 꾸려진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민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진남표 의원, (사)도시인 금제종길 이사장(전 안성시장) 등 생태환경분야 전문가와 김영창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등 주민대표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물려하기로 약속했다.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유기상 군수와 김영창 회장이 맡게 됐다. 민관 추진위는 내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정작성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216만2925㎡(69만평) 규모의 심원면 염전부지 매입계획을 발표하고 1차로 83만·409㎡(28만평, 약 34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 2023년까지 잔여 부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규모 토지매입 배경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으로, 연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둔 고창갯벌과 연계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 차원에서 진행됐다.

2018년 국토부와 전북도가 연계해 사업을 발굴, 향후 지역을 서해안권 해양생태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창 심원 염전부지는 희소가치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대규모 천일염 생산지로 전통방식으로 균대역사문화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식생이 복원된 활한 폐염전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해당부지의 활용과 고창갯벌과의 연계 추진 등 고창군을 넘어 서해안권의 중요한 생태관광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다.

수십년간 지역 갯벌을 조사해 온 전승수 교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도 민관 추진위원회에 함께했다. 전 교수는 "이미 간척되어 육지화 된 곳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온다"며 "갯벌보존 및 염습지 복원으로 연간 3조~4조원의 관광수익을 얻는 '독일 갯벌국립공원' 등을 우리 나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며 "지역에 거스리지 않고 오직 팀의 노력만으로 천일염을 거두는 소금장인의 열정에 지역의 생태문화 관광 지원이 결합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난 24일 행정·의회·전문가와 주민 등 30명으로 꾸려진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민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고창군, 농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 확정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노후 유통시설을 보수하고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은 국비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저온저장고 등 노후시설 개·보수와 GAP시설(농산물우수관리 제도) 보완·현대화 선별시설을 구축한다. 또 그간 농산물 상품화 과정에서 부

족한 물류기기와 장비를 추가 구입해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달 공모사업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2021년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돼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지원 공모 최종 선정

부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관련 영구문서인 환지계획서,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도근접가감대장 등을 전산화해 공공 기록물의 훼손 멸실 제난 등을 방지

하고 디지털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자료들의 훼손 탈색으로 인한 정 보손실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 전산화된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

량결과도 전산시스템에 추가로 구축해 지적관련 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승 군 민원과장은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으로 토지이동 관련문서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군민에게 고 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산내면 장금리에 국비와 시비 33억 원을 들여 '장금지구 신규마을' 20세대 택지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정읍시 '장금지구' 택지조성 완료

섬진강 옥정호에 위치, 20세대 도시민 유치·농촌지역 활력

정읍시가 산내면 장금리에 국비와 시비 33억 원을 들여 '장금지구 신규마을' 20세대 택지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2014년 공모사업 시 모집

된 입주예정자 20인에 대하여 우선 분양 공고하여 20필지 분양자가 최종 선정되면 계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입주자 개인별 전용마을을 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건축이 완료되면 장금지구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마을로 각광이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장금지구 신규마을은 섬진강 옥정호에 위치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생활 여건이 우수해 도시민들의 호응이 커졌다"며 "앞으로 대민 적극 행정으로 페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마을정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 /정읍=김대환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기업·단체 정읍시에 물품 기탁

정읍시(시장 유진섭)의 자매도시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소재한 기업과 단체가 지난 25일 정읍시에 물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왔다.

(주)리콤(대표 김진현)은 비접촉식 체온계 100개를 (사)서울패션섬유봉제 협회(협회장 오병열)는 의류 1,000벌, U&B 코퍼레이션(대표 김세억)은 침대 패드 150개를 전달했다.

이 업체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해 긴장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에 11만 정읍시민을 대표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1,800여만 원 상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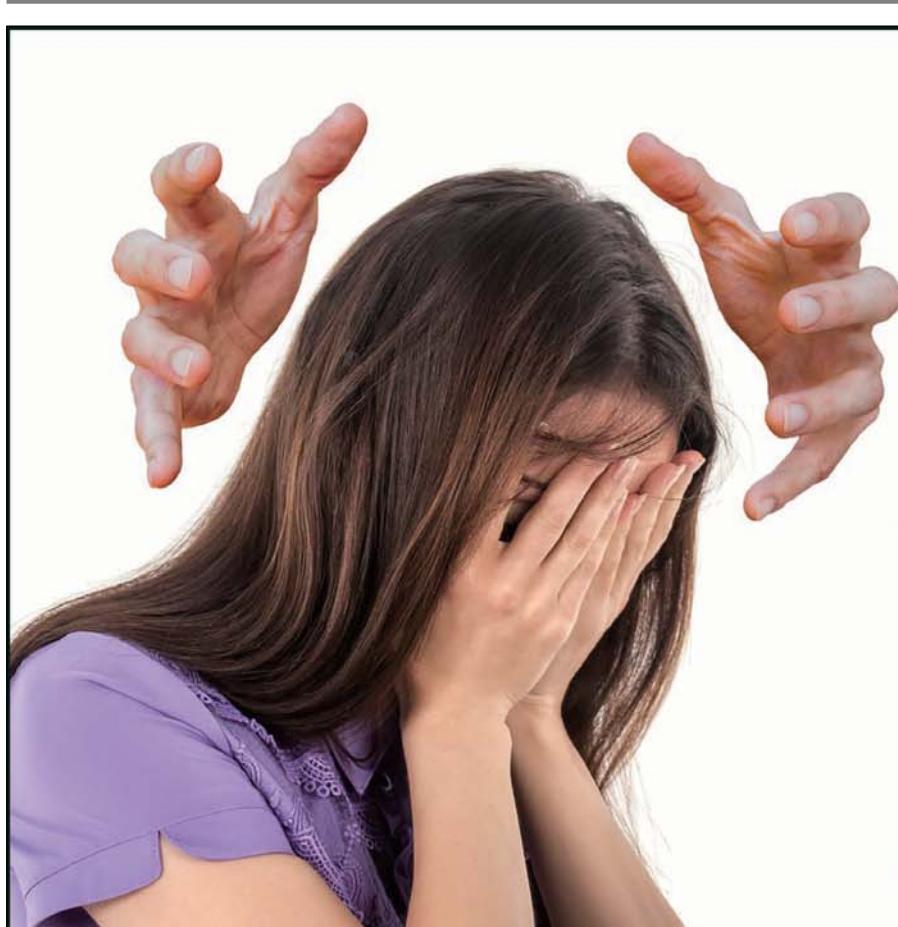
물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이 코로나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기부는 정읍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특히 자매도시 서울 성북구의 업체들이 마음을 모아 이루어진 기부라는 점에서 더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서울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112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